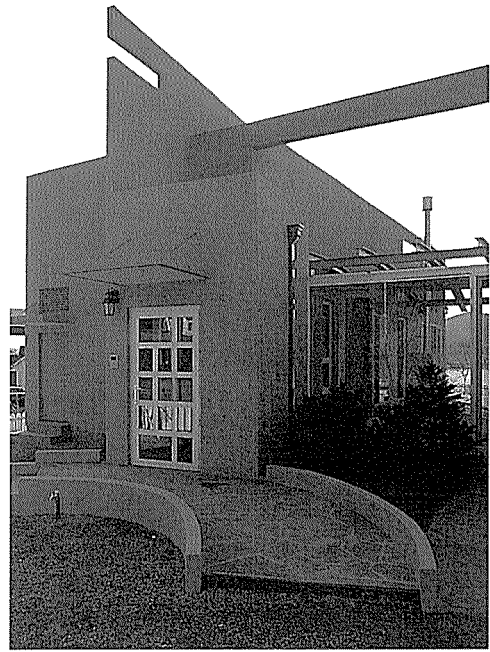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회리의 110여 평 규모의 주유소 옆에 위치한 자투리땅에 전원 주택을 지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이 프로젝트는 '전원주택'이라는 단어를 생각의 틀에서 끌어내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단어로 꾸미는 작업이었다.

의뢰를 받은 후 현장 답사를 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동안 새색시가 친정 나들이 나온 것 마냥 마음이 들떠 있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주위를 둘러 보다가 깔끔하게 정지되어 있는 땅을 볼 수 있었다. 대지가 도로와 접해 있지만, 유유히 흐르는 북한강 물줄기와 조용하고, 정겨운 풍경은 전원 주택이 들어 서기에 안성맞춤인 장소였다. 건축주가 주변에 있는 다른 지번의 땅도 소유하고 있었지만, 농지전용 대지에 지어진 단독주택인 경우 1,000㎡(약 303평) 이하로 허가면적이 제한되기 때문에 한 필지만 활용하기로 했다. 건폐율 25% 이상(가평군청 기준 - 준농림지일 경우 연면적 60평 이하로 집을 지으면 신고만 하면 된다)이 되어야 전용허가가 나는 점을 고려해 건축면적 40평에 1층으로 된 집을 짓기로 결정하면서부터 고민은 시작되었다.

첫째, 휴식을 취하는 동안 강을 바라보고 싶다는 건축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건물 배치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했다. 대지가 송이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보다 높은 곳에 자리잡고 있었지만 강으로 향하는 시선이 비닐하우스 상단부에 걸려 방해받고 있었다. 가장 좋은 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거실 공간을 배치하기 위해 주변환경을 꼼꼼히 살피면서 배치도를 구상했다.

둘째, 외장을 소박하게 처리해 절약된 비용을 가지고 내부를 꾸미는데 투자하고 싶다는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한 집을 지어야 했다. 경제적인 주택을 짓기 위해 골조는 철골을 이용하고, 외부 마감재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했다. 그런데 철골조일 경우 규모가 작은 주택일수록 평당 단가가 올라갈 뿐더러 작업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건축비 절감면에서 비효율적이었다. 어떤 재료를 써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가장 무난한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라는 결

론하에 콘크리트 구조에 드라이비트로 외부 마감재를 결정했는데,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 하는 동안 심적인 변화가 생겼는지 외부 마감에 드라이비트와 아연도강판을 함께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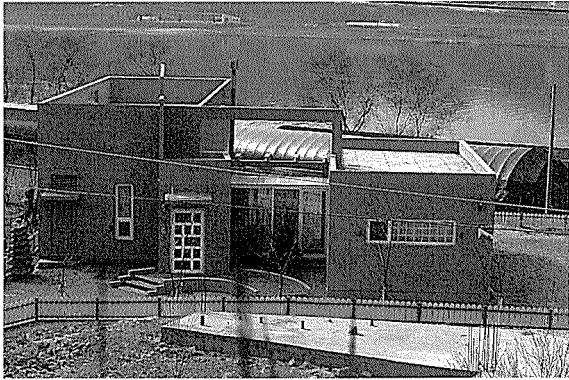
셋째, 주택 내부구조와 인테리어에 신경을 집중시키면서 미묘해진 외관에 변화를 주어야 했다. 황색과 회색 드라이비트로 마감된 외관에 가벽을 세워 단조로운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옥상에 프레임을 걸어 포인트를 줌으로써 생동감있는 외관을 만들었다.

넷째, 기능을 단순하게 하면서 공간 구분을 명확하게 해 군더더기를 없애야 했다. 거실과 주방을 열린 공간으로 처리한 후 거실과 주방 사이에 간이벽을 두고, 함께 하는 공간과 침실이 자리한 사적인 공간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방법을 사용해 각 공간에 독립성을 부여했다. 특히 열린 공간에서 사적인 공간으로 들어가는 통로(브리지)를 투명유리로 처리해 북한강을 바라보며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아름다운 풍경과 접하면서 정서의 순화에 도움이 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배려의 결정체인 것이다. 12m 도로와 접한 부분은 외부의 시선과 내부 시선이 교차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 받을 가능성이 많음을 고려해 나무를 심었다.

물아일체(物我一體)

건축주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면서, 파티나 모임의 장소로 쓰이는 거실에 중점을 두어 설계한 결과 거실 중심의 평면을 가진 전원주택이 되었다. 흔히 접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지만 어렵고, 난해한 구조라고 할 수는 없다. 나는 집과 사람이 융화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구조로 꾸며진 집이길 원했다. 그래서 개방감과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거실의 층고를 다소 높이고, 복도와 방은 아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층고를 낮게 처리했다. 각각의 공간이 그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배려한 흔적들로 도배된 곳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내·외부 마감



을 간결하게 처리하면서도 이 집만의 독특한 멋을 표현하기 위해 자칫 소외될 수 있는 공간에도 눈을 돌렸다. 외관에 전원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회색과 황토색 드라이비트를 이용하고, 내부는 밝은 주황색조를 주로 사용해 따뜻한 느낌을 강조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만 매입을 사용해 모던하고 심플하게 처리한 조명기구와 방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시스템 창호가 조화를 이루어 모던한 느낌에 세련미를 덧붙였다. 특히 복도 부분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서 포인트를 주고, 벽난로 앞이나 싱크대 앞에 몇 개의 무늬타일을 붙여 미적감각과 아이디어를 살려 보았다.

이 집은 그다지 주목받을 만한 설계수법을 동원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일반인 전원에 집짓기처럼 목조로 할 것인지, 황토를 쓸 것인지 하는 등의 재료선택에 골몰하지도 않았다. 그저 평소 설계습관처럼 경제성이나 땅이 지니는 가치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리고 이 집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어떤 건축 프로그램을 부여할 것인가가 주관심사일 뿐이었다. 세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작품같은 집을 설계하기 보다는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집짓기를 시도하는 필자를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 궁금하다. 설령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많다고 할지 언정 아직은 그 생각을 접고 싶지는 않다.

위치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삼희리 474-15
대지위치	381.00㎡(115.00평)
건축면적	130.99㎡(39.62평)
연면적	129.37㎡(39.13평)
건폐율	34.38%
용적율	33.96%
규모	지상1층
주차대수	1대
구조	철골조/콘크리트 블록조

